

학생문예운동 점검과 역할 규명을 위한 시리즈 (1)

진박한 시대의 요구

자르문예운동론

그간의 문예선전활동은 각 문화패의 위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시리즈에서는 학생문예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과 장르문예활동론을 제기하여 현재 산적해 있는 문예선전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 글이 문예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문예선전활동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편집자註)

—사회: 학생 문예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예술(문예)의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운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문예사조의 변화과정과 현재적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화: 사회문화단체에서 60년대 문학운동과 탈춤운동을 시작으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는데, 70년대에는 청년학생문예운동으로 탈춤이 문예운동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운동의 장르가 분화 발전하고 그 단위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대중들이 문예 운동으로 진출하면서 '문예운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아직도 '문예운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문화운동과 문예운동은 그 개념이 서로 틀린데 문화운동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정신적·물질적 유산들을 일컬으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문예운동은 예술적 형식을 통해서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대중들을 감동시켜 사고를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므로 용어가 빨리 정립되어야지만 문예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기: 앞서서 문예운동의 기능을 대중들을 감동시켜 사고를 변화시키는 인식 교양적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이 기능외에도 대중을 보이지 않게 조직화시키는 조직 동원적기능, 또 창작과정을 통한 모의투쟁적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호: 문학예술이란 용어를 '인간학'이란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문예'가 사회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하는것은 사회가 인간의 자주성을 발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전제하에 사회운동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화활동들과 맞물려서 발전하였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문학예술이 진보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하면 사회 발전의 합법적성에 위배되므로 역사발전과

정세에서 퇴보합니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인간의 자주적 삶을 향상시키고 가치있는 삶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창작물은 현실의 본질을 현상의 모습에서 밝혀냈지만 이와 더불어 이제는 창작과정 속에서 그 모습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사회관계 속에서 튼튼한 동지에도 창작과 아울러 담아내야 됩니다.

▲구준모: 문화운동은 크게 생활문화운동과 문예운동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문예운동을 설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문화운동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에 이르러 문예운동이 활성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사유에는 추상적 사유와 구체적 사유 두가지가 있는데 추상적 사유에는 사회과학이 있었고, 구체적 사유에는 매체를 통한 형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예술'이라 말할 때는 바로 구체적 사유를 통한 인간상의 형상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정: 탈춤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바로 문예활동은 창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치와 예술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요즘은 창작 준비과정 속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자주화되고 창작물을 통해 인식교양적 기능을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전선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와 예술을 분리하는 성향도 창작과정 속에서 정치투쟁 예술투쟁으로 공유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문학예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간의 문예선전활동의 내용과 성과물, 현재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좌담 문예선전활동의 점검과 발전방향의 모색

▲구: 먼저 '탈'반 조직 건설부터 말하자면 1960년대 5·16쿠데타 직후 한·일 공화회담의 잔재가 우리 문화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것을 되찾자는 각성으로 이어져 민족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 성격, 경제에 있어서의 자립과 모하계 맞물리면서 민족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의 탈춤 창단을 시작으로 하여 본교는 77년 '탈'반이 창단되어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씨름 중심의 문예운동이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와 예술성을 바탕으로

이원화된 체계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학습, 투쟁, 생활들을 총화해내지 못하고 공연만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학생 문예패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창작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 앞에서 말한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상황에서는 그럴 여건이 안됩니다. 89년 이전에는 학술부만 있고, 교육과 공연을 꾸리

주한다는 것이 사회과학 서적 몇권 더 읽는다고 되는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의지나 사상적으로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예이론 속에서 사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올바르게 자주화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현재 문예선전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실제로 활동하고 문예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임: 다른 사회문화운동 단체들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문예활동을 하면서의 장점은 많은 시간을 문예활동에 할애할 수 있고

본 좌담은 '학생문예운동의 점검과 문예인론의 역할규명을 위한 시리즈'를 시작하며 문예선전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때: 8월28일 오후 5시 ▲곳: 본사 회의실 ▲참석자: 구준모(탈반 회장), 박종호(현 총학생회 문화부장), 정석화(서충현 문화국), 임창기(전국노동민족문화운동연합 정책실장) ▲사회: 이금주 기자 ▲기록: 정리: 서동국 기자



공연중심 조직체계, 문화패 역량 약화시켜 문예중요성 인식한 지속적 활동 요구돼 장르연합 건설이 문선체 조직의 관건

새롭게 정치투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에는 문예운동이라는 특별한 전장을 가지지 못한 한계로 탈반 경험을 가지고 단체 학생회나 과 학생회로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문예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겠다는 뚜렷한 전망을 가진 인제가 없었습니다.

▲정: 예전과는 달리 최근의 문화패와 문예운동에서는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제와 편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한 변화발전입니다. 각 문화패가 사회과학학과 문예이론 학습으로

창작물을 내오는 문예창작부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저학번들은 문예장르나 민족문화창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문예창작활동을 해오면서 중요하게 느낀점은 문예창작에 있어서는 연구, 조사, 사업이 항상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내 문예패의 문제점이 공연 중심의 형태만이 아니라 창작과정 속에서 올바르게 회원들의 자주적인 요구들을 받아안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

주한다는 것이 사회과학 서적 몇권 더 읽는다고 되는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의지나 사상적으로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예이론 속에서 사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올바르게 자주화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현재 문예선전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실제로 활동하고 문예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임: 다른 사회문화운동 단체들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문예활동을 하면서의 장점은 많은 시간을 문예활동에 할애할 수 있고

중요적이듯이 문예패도 자주적 조직이므로 노도 마음대로 동원해서는 문예패 자체내에서 행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문예패 회원들이 의식이 높아지면 노조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 문예운동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문화투쟁이 정치투쟁이나 경제투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제로 문화투쟁은 제3세계의 경우 제국주의 문화 침투를 막아내는 1차적 문화운동과 창작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2차적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문화가 대중에게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문예패내에서도 인지되어야 합니다. 문예패의 창작과정은 '무엇을 창작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창작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며 창작자가 잡히면 줄거리를 대학으로 세우고 먼저 실험적으로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분임토론을 하여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면 작품을 수정해서 다시 연습, 토론 등을 거듭하면서 고민된 내용을 총화하고 다시 걸어서 수정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품이 몇몇 사람의 손에

- ### 글쓰는 순서
1. 문예선전활동의 점검과 발전방향의 모색(좌담)
 2. 문예사상의 변천과정과 현재적 고찰
 3. 자주적 대중문예조직론에 대하여
 4. 장르문예활동론을 제기하며
 5. 학생문예운동의 계승과 발전

문예패가 문선대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두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예패내에 문선대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인물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조직이 강화되면 문선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즉, 문선대를 어떻게 건설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층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기층 문예패내에서 동아리 운영방식들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며 문학예술이 인간의 자주적 삶을 반영하도록 문예패 회원들의 자주적 요구들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 내 문예패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기풍이 조성되어야 하고 회원들의 학술적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층문예패까지 자주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아까 문화부장님이 대안으로 창작 중심이라든지 민주주의방식 그리고 각 성원들의 에정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탈반의 5월 문선대 사업을 비추 보았을때 고학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성원들이 일정 정도 공유하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처음에는 민주적토의 방식들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층투쟁을 하거나 문선대활동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어 이 탈하러는 성원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지난 학기에는 5월 투쟁에서의 문선대활동, 범민족대회·당시와 통일문선대활동 등 활발한 문예선전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2학기때 요구되는 문예선전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문선대 활동이 요구되었을때 내부역량을 고려하면 크게 무리없이 문선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2학기 사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문예패 조직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층 단위 문예패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명확한 전망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체별로 연대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투쟁기간을 대비해서 분임토의를 통해 '우리 문예 일꾼들은 무엇을 할것인가'하는 고민이 선행되고 문선체의 건설은 그 이후에 논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은 각 근거지에서 어떻게 문선대 활동을 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각대학의 단위문예패를 통해 연합집회, 연합투쟁의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일입니다. 중앙단위의 문선체제는 92.93년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5월 투쟁의 성과를 볼때 근거지를 잘 꾸려야 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장르 연합을 탄탄히 세워야 하며 장르의 특성을 살려 운영·공헌방식, 선전활동 방식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92.93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각 장르 연합 조직이 건설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학문전 건설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장르연합 조직 건설 강화가 학내 문예운동의 중심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구: 매체별 연합과 학문전 건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차적으로는 단일패 성원들의 정치 사상의 의식내지는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연하는 것이 새롭지 못하고 세시대 대중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층문화패들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층문화패가 강화되지 못하고서는 매체별 연합도 학문전 건설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년 초까지 단일패가 강화될 수 있는 지도체제의 발굴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매체별 연합은 내년 봄이나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임: 연합조직을 꾸리는게 보다 높은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층조직을 강화하는데도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경험상으로 보건데 연합조직을 내올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 조직 건설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건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건설 논의를 하층으로 확산시키고 인재를 꾸려서 상층에 이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문예선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각단위 문화패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토론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풍요로운 미래 - "소중한 전기"

"공기·물·그리고 전기" -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입니다.



첨단기술을 향한 한국전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풍요로운 전력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전기.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발전소 건설과 첨단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